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보도일시	2023. 2. 6 (월) 10:00	배포일시	2023. 2. 6 (월) 10:00
담당부서	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	책임자	부장 이주헌(061-338-5861)
		담당자	대리 손솔아(061-338-5863)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조 4천억원 투입

-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강화와 신규농업인의 영농진입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 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577억 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총 7,821억 원을 지원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것

**농지규모화사업: 농가가 영농 규모를 확대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통해 돕는 사업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2,9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부채 농가의 큰 호응을 얻어 당초 사업비의 105% 수준인 3,231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했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는 2,282억 원이 투입된다. 2011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가입건수는 2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가입자는 월평균 98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의 신규 사업 도입과 181억 원의 예산 편성으로, 청년농과 신규농업인의 농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확보와 농지지원 강화로 미래 농업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완화를 위하여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활용도가 낮은 농지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

또한, 지난해 2월 18일 출범된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한 상시 농지 관리조사, 농지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지관리 기능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 뿐만 아니라 2030세대를 비롯한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통합상담 센터(1577-7770)를 통한 문의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